**PRESS 15**

**절대 네 이웃을 믿지 마라!**

**<원정빌라>**

**이현우 X 문정희 부산에 뜬다!**

**12/6(금) 부산 무대인사 확정!**

시사 이후 압도적 몰입감의 섬뜩한 현실 공포로 호평 받고 있는 영화 <원정빌라>가 12월 6일(금) 부산 무대인사를 확정 짓고 관객들을 만난다.

[각본/감독: 김선국ㅣ출연: 이현우 문정희 방민아ㅣ배급: ㈜스마일이엔티ㅣ제작: ㈜케이드래곤ㅣ개봉: 2024년 12월 4일]

**12월 6일(금) 부산 무대인사 전격 확정!**

**무서운(?!) 빌라의 이웃 이현우 X 문정희 동반 부산행!**

**부산 올로케이션 촬영 작품이어서 더 큰 의미! 특별한 팬서비스 기대!**

****

**교외의 오래된 빌라, 어느 날 불법 전단지가 배포된 후 이로 인해 꺼림칙하게 된 이웃들로부터 가족을 지키려는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 현실 공포 영화** **<원정빌라>**가 개봉 주인 12월 6일(금) 부산 무대인사를 확정했다.

**12월 6일(금) 무대인사에는 이현우 배우, 문정희 배우, 김선국 감독이 참석하여 CGV 해운대, CGV 센텀시티, CGV 서면, CGV 서면삼정타워 등 부산 일대의 극장에서 관객들을 만난다.** 이번 부산 무대인사는 <원정빌라>가 부산에서 촬영을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원정빌라>는 부산의 재개발 지역 빌라를 중심으로 부산에서 모든 촬영이 진행되었다. 영화의 주 배경인 빌라 촬영을 위해 제작진은 부산의 많은 재개발 단지를 둘러봤고 재개발 승인으로 주민들이 이전해서 비어있는 곳을 결정하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전폭적인 도움으로 촬영했다. 그 외에도 부산의 도심과 바다가 영화 곳곳에 등장하며 <원정빌라>만의 독특한 감성과 비주얼이 완성되었다. 배우들 역시 현실감 있는 촬영 현장의 좋은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어 촬영 후 함께 하는 부산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처럼 뜻깊은 의미를 지닌 부산 무대인사를 통해 빌라의 이웃들인 203호 이현우, 303호 문정희는 관객들과 오싹하게 행복하고 소름 돋게 즐거운 특별한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무대인사 티켓은 CGV 홈페이지와 APP을 통해 예매할 수 있다.

시사회 이후 **“뼛속까지 섬뜩! 몰입감 100% 현실 공포물 탄생”, ”현실이라 더 무서운 영화”, ”캐릭터와 딱 맞아떨어진 배우들의 열연”, “소름 돋을 정도로 무서운게 집와서도 후덜덜”** 등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는 <원정빌라>는 무대인사 확정으로 더욱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2월 극장가를 사로잡을 압도적 몰입감의 현실 공포 <원정빌라>는 12월 4일 전국 CGV에서 개봉한다.

**올겨울 가장 충격적인 현실 공포 탄생!**

**뼛속까지 섬뜩! 몰입감 100% 현실 공포물 탄생**

**헤럴드POP 이미지 기자**

**스릴러퀸 문정희의 명불허전 연기 열전**

**MBC연예 김경희 기자**

**<숨바꼭질> 문정희의 섬뜩한 연기. 현실 공포가 더 무서워!**

**뉴스1 정유진 기자**

**분노\*슬픔 담은 현실 공포**

**이현우, 문정희, 방민아의 캐릭터와 딱 맞아떨어진 열연 몰입도 높였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이현우, 문정희가 만든 현실 공포**

**OSEN 하수정 기자**

**순둥이 이현우의 변신**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

**소심한 전단지 복수로 번진 사이비 지옥불**

**스포츠W 임가을 기자**

**현실이라 더 무섭네**

**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이현우, 문정희, 방민아가 선사할 현실 공포**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INFORMATION**

**제목**  원정빌라

**각본/감독** 김선국

**출연** 이현우, 문정희, 방민아

**배급** ㈜스마일이엔티

**제작** ㈜케이드래곤

**장르** 공포 스릴러

**러닝타임** 86분

**등급** 15세이상관람가

**개봉** 2024년 12월 4일

**SYNOPSIS**

교외에 위치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 원정빌라 203호에 사는 주현은 아픈 어머니와 조카를 돌보며 은행 경비 일과 공인중개사 시험을 병행하는 청년이다.

순한 성격으로 빌라의 모든 이웃들과 스스럼없이 지내지만, 이기적이고 무례한 위층(303호) 여자 신혜와는 주차 문제부터 층간소음까지 사사건건 부딪힌다.

어느 날, 주현은 303호 우편함에만 불법 전단지를 꽂아 넣는 소심한 복수를 하고, 이는 뜻밖에 위층 여자의 광기를 건드리는 도화선이 되어 이웃은 물론 주현의 가족까지 위험에 빠트리게 된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그 종이를 넣으면 안 되는 건데…”***

**문의사항은 플래닛 PlanIt (010-3426-0669, 010-9600-9717)으로 연락바랍니다.**